

문화광장



현 창 석
브랜드101 대표이사·브랜드연구소장

세계적인 휴양지 하와이를 여행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기념품은 단연 화려한 패턴의 ‘하와이안 셔츠’다. 여행객들은 이 셔츠를 입고 해변을 거닐며 비로소 자신이 하와이의 낭만 속에 들어와 있음을 실감한다. 최근 제주의 주요 관광지나 동문시장 등지에서 만나는 갑골모자의 풍경도 이와 닮아있다. 제주 여행에 주된 목적이 ‘불거리’ ‘먹거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행의 시작 단계부터 구매해 고유의 감성과 즐거움을 실시간으로 향유하는 ‘체험형’ 콘텐츠이자 ‘재미있

‘보는 제주, 먹는 제주’서 ‘즐기는 제주, 재밌는 제주’로

는 관광’의 도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신호다. 그러나 갑골 모자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자 거의 모든 소품 가게와 가판대가 복사해 붙인 듯 똑같은 모양의 모자만을 팔아놓기 시작했다. 먹거리 시장이 ‘갑골 초콜릿’과 ‘한라봉 타르트’ ‘오메기떡’이라는 획일화의 늪에 빠졌던 것처럼, 소품 시장마저 ‘천편일률(千篇一律)’의 복제 굴레로 빠져들고 있다. 최초 개발자의 저작권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으로 유행에만 편승한 획일화된 공급은 높은 소비 잠재력과 세련된 안목을 지닌 여행객들을 금세 지루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여행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지출을 제약해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낳게 된다. 관광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제주는 독특한 화산 지형과 돌담이 만

들어 낸 경관, 거친 바다를 일구어 온 해녀의 철학, 섬 곳곳에 서려 있는 신화와 설화, 그리고 고유한 제주어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산의 보고(寶庫)다. 돌담의 상생 정신을 세련된 리빙 가구로 풀어내거나, 해녀 문화를 자연으로 확장하고,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이나 디지털 굿즈로 개발할 때, 관광객들은 더 역동적인 ‘재미’를 느끼며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는 여행객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여 실질적인 객단가 상승과 지역 경제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기념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여행자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제주의 추억과 재미를 소비하게 만드는 최고의 ‘문화 매개체’다. 제주 관

광기념품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고, 게다가 최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전반적인 소비 수준과 눈높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단순히 저렴하고 대중적인 기념품에 만족하기보다, 여행지의 문화를 온몸으로 즐기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증명하는 차별화된 제품에는 기꺼이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 성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갑골 모자의 인기는 여행객들이 제주라는 브랜드를 직관적이고 유패하게 소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갑골과 한라봉’이라는 시각적 1차원 성에서 벗어나,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독창적 지식 콘텐츠(IP)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강화해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중복 지급을 비롯 쪼개기 계약, 회계증빙 미비 등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 사업 235건과 미정산 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3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

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 강사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또 수익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보조금은 도민의 혈세로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기반 탄탄하게

너나없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 주인공들의 사연을 제주의 사계절에 담아 풀어낸 드라마가 글로벌 흥행을 이여가자 제주도에서는 이를 해외에 제주를 알리는 통로로 삼았다. 나아가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폭삭 속았수다’의 성공을 발판으로 로케이션 작품 유치를 늘리는 등 제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의 일이다. 이 말은 반쯤 실현됐다. 그해에 추정까지 더한 로케이션 유치·지원 예산은 3억5000만원이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제주 지역 촬영 유치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엔 제작사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그들은 제주가 한국적이면서 이국적인 차별화된 배경으로 글로벌 OTT

콘텐츠에 최적이라고 했다. 기술의 발전에도 제주의 바람, 빛, 바다는 복제 불가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용역의 연구진은 “영상 로케이션 지원은 제작사 촬영의 편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비액의 30%를 인센티브로 환급하는 방식의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게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전신인 제주영상위원회 등 제주 영상 산업의 역사는 짧지 않은 편이다. 그에 비해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에 따른 효과 분석은 꾸준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기회에 예산·인력 등 영상 산업의 기초 체력을 점검할 때다.

열린마당

일상 속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기



양 재 철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소방교)

요즘 같은 무더위 속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전제품이 에어컨과 선풍기이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사용량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전기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 수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올여름은 에어컨 실외기에 관심을 가져보자.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돼 청소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실외기 내·외부의 먼지와 이물

질은 열을 발생시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어컨 가동 전 실외기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연결 전선이 벗겨지거나 낡은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 냉방기 작동 시 멀티탭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전력이 큰 냉방기와 다른 가전제품을 함께 연결하면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멀티탭은 전력을 늘려주는 장치가 아닌 나누어 사용하는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속되는 폭염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한 무관심이다. 앞서 안내한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 모두에게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초개별화 맞춤형교육은 제주교육 방향성”

AI 플랫폼 고도화 추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20일 “초개별화 맞춤형교육은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철학이자 방향”이라고 강조. 고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함께 성장 중간회의’에서 이같이 언급. 이날 회의에선 교육감 공약인 초개별화 맞춤형교육을 위한 ‘제주 교육 인공지능(AI) 플랫폼’ 고도화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는데, 고 교육감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제주교육의 모든 정책과 행정은 결국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 김지은기자

아동급식 부적합 업소 390곳

○…제주시가 지난 6월 한 달간 아동급식카드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1만74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사실상 폐업 상태인 가맹점 228개소를 비롯해 술 집과 음식 미판매 업체 등 아동급식 제공에 부적합한 업소 162개소를 포함해 390개소를 적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제외 조치를 단행.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술집이나 유흥주점 등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부적합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아동급식카드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백영탁기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분말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